제 499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1년 8 월 5 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종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렵니다

-오늘 저녁 홍의만·윤혜경 선교사, 농촌전도봉사단, 단기선교팀 파송식 가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동북아시아 지역 복음회를 위해 홍의만 목사와 윤혜경 교수를 파송케 된다. 이들은 공산권에 복음을 전할 일꾼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에 헌신케 된다.

한편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모악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펼 농촌전도봉사단 50명이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파송식을 갖게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교육과 기도모임 그리고 두 차례의 사전답사를 통해 준비해왔다.

태국 치앙마이로 다음주에 출발할 단기선교팀 27명도 오랜 훈련과 기도를 통해 준비를 마치고 역시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파송식을 갖는다. 이들 대열에 동참한 이들은 물론 온 교회가 기도와 필요를 채우는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홍의만 선교사 약력
-1943년생
-연세대 졸업
-매릴랜드 대학 졸업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
-임마누엘 교회 담임목사
-워싱턴 개혁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00 과기대 교수

▶ 윤혜경 선교사 약력
-1945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Maryland Institute & Art (매릴랜드예술대학)졸업
-체사픽신학교 졸업
-벌티모어 한국학교 교장
-성도교회 선교사겸 부교역자 역임
-00 과기대 교수 및 대외협력부 부처장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공부

본 교회 2부 예배시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는 찬양준비를 하다보면 교회 예배 계획표 상의 성경공부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1:20-1:50까지 30분간 헵시바홀(502호)과 여수룬홀(503호)에서 성경공부를 갖도록 변경하였다.

교사는 박철훈 장로, 김광신 장로, 박두호 장로, 김사무엘 장로 등 4명이며 각 파트별로 한 반씩 반을 구성하여 성경공부를 진행한다.

교사교육은 장년 1-2부 교사 교육시간(매주일 10:40 3층 예배실)에 이만열 전도사를 통해 교육받게 된다.

▶교육장소 및 교사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장소	502	503	502	503
교사	김광신	김사무엘	박두호	박철훈

우심화 목사 안식년

장년 4,5부를 지도하고 있는 우심화 목사가 시무하는 ACTS에서 안식년 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심화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1년간 연구를 목적으로 이번 주간에 떠난다. 따라서 장년 3,4,5부 교사지도를 김영한 목사가 맡는다.

장년부교사 성경공부 변경안내

장년1~ 2부- 이만열 전도사 / 주일 10:40
본당2층(301호)
장년3~ 5부- 김영한 목사/ 주일 10:40
701호

은빛찬양대 수련회

우리교회의 가장 연장자로 구성된 은빛 찬양대가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은빛 찬양대의 수련회는 이종윤 목사와 김상철 장로(찬양위원장)를 강사로 모시고 8월7일 화요일 11시 여수룬 홀(503호)에서 하루동안 갖게된다.

인생의 황혼기를 천국만을 바라보며 보람있게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하여 지난 2000년 4월5일 수요1부 예배 시에 찬송가 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를 첫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바친 은빛 찬양대는 소프라노 44명 앨토 17명 등 총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첫 주 수요1부 예배 시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

지난주 이모저모

①②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 제14회 어린이대회 시상식 - 받은 달란트대로...

③우리교회 최고령자 강정옥권사님의 90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④7월 새가족환영회 -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순례자 지령 500호 기념 좌담회

서울교회 10년 동안 교회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힘을 써온 순례자가 오는 8월12일 주일로 지령 500호를 돌파하게 되어 기념 좌담회를 이종윤 목사 내외분과 담당교역자 성도 대표를 모신 가운데 8월9일 5시 비전 홀(802호)에서 갖는다.

그 동안 서울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면을 통해 글로 전파해온 순례자는 서울교회의 산증인이 되어왔다.

이번에 지령 500호를 돌파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본지를 아껴주신 성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순례자는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정도를 걷기 원하는 서울교회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 강해

메시아의 승리

(이사야 49:7 – 13)

이중윤 목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지만 필경은 승리하시어 모든 왕들까지 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질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이 비천한 걸음을 걸으셨으나 그 걸음은 진정한 승리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심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섭리였습니다. 메시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승리하심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8–10절)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8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과 의의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회복된 땅으로 기업을 상속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을 원했으나 주님은 영적 나라 회복을 가르치시며 그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육신이 부해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죄와 어리석음과 사악의 포로 된 자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9절).

'흑암에 있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또 '나타나라'함은 복음의 빛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9절).

메시아가 오시면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때 길에서 먹을 것이 있겠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먹이려면 풀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헐벗은 산에 풀밭이 있으리라고 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비록 험하다고 해도 필요한 것을 넉넉히 준비해 주십니다. 풀 없는 헐벗은 산에 풀이 있다는 것은 평범함 축복이 아닙니다.

'길'은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믿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10절).

메시아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굶주린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새 힘을 얻는데 모든 필요나 조치를 위해 주십니다. 사막에서는 주리고 목마르며 더위와 볕에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위'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신기루를 의미합니다. 신기루는 사막에서 물과 같이 보이는 열기입니다. 사막과 같은 괴로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악조건이 많이 생겨지고 거짓말로 인도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만 모시면 그가 우리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 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보급해 주십니다. 그 분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그 분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2.메시아는 구원운동을 일으키신다 (11–12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11절)는 산과 같은 모든 높은 장애물이 없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산과 같은 바벨론이 길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운동을 예표한 것입니다.

신자의 영적 생활에서 산과 같은 장벽이 놓일 때가 축복의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하나님을 향해 심령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됩니다. 산과 같은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산을 넘어가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역경은 오히려 복입니다.

11절의 '모든 산'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제가 아닌 것을 난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이들은 그런 것을 산으로 보지 않고 대로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12절).

메시아는 이방 나라들(원방, 북방, 서방) 그리고 시님(페르시아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China, 곧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로 해석)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모으십니다.

3.메시아의 승리를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노래 부르도록 소집되었다(13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 산들을 불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므로 자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메시아의 승리를 노래해야 하는 것은 구속자를 기다리는 영광 때문이며(5–1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 때문입니다(16–26절).

물론 이 승리의 노래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노래 소리임에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메시아를 진실로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듯이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등부

고아라(1학년)

수련회...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보고 들어왔던 말이다. 그래서 더욱 무 덤덤하고 식상하게 들렸는지도...그냥 한번가면 기도회 때 눈물조금 흘리고 그 감동으로 고작 일주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그런 것이 수련회라고 무의식중에 느끼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울며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 과연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러나 내 삶을 바꾸고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시간...그것이 바로 수련회라고 열일곱이라는 늦다면 늦은 나이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민웅(2학년)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은 저녁집회 시간이었다. 이태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껏 자기가 행동했던 것들에대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임종현(1학년)

이번 수련회... 너무 급하게 준비한 까닭에 더욱 걱정이 된 채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첫날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 찬송소리와 전도사님의 강의가 나의 마음속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주었던 것이 이번 수련회 때 얻은 수확이었다. 특히나 이번 수련회는 새로 온 여러 학생들이 많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캠프 파이어 시간때 서로 원을 그리며 찬송 부르고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던 즐거운 시간들.

정말 잊혀지지 않은 좋은 시간이었다...

김미래(1학년)

여름수련회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 뿐이라

나는 중3초부터 단짝친구 아라를 따라 서울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3 여름수련회와 겨울수련회, 또 이렇게 고1여름수련회 까지 가게 되었다.

솔직히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헛 다녔다고 할까? 지금 생각해 보면 가기 싫으면 안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서울교회를 정말 꼬박꼬박 나오면서 처음엔 없었던 신앙심이라는 게 조금씩 싹 트기 시작했고, 수련회를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 진 것 같다.

이번 수련회도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고 오리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갔다. '지혜를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여름수련회는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기쁜 일이 많았다.

얼굴은 알았지만 친하지 못했던 고등부 언니, 오빠, 친구들과 좀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성경퀴즈와 G.B.S(조별모임)을 통해서 성경말씀을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성경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조별모임에서는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공부했는데 지혜란-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태훈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구나.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은 정말 썩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제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 정말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음 휴양림에서 계곡 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을 때, 조 구호를 외칠 때, 새벽 3시까지 캠프파이어 하면서 복음성가에 맞춰 포크댄스 추고 서로 축복송을 불러줄 때, 천로역정하며 정말 너무 많이 길었을 때 정말 끝이 없다. 그만큼 너무나도 즐거웠던 추억이고, 은혜가 충만했던 2001년 고등부 여름수련회였다. 이렇게 멋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수련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박마리아(초등부 4년)

저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밤에 기도를 할 때 저희들은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니 예전과는 달리 새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예수님께 참 감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신 것도, "칭찬합시다"라는 제목을 갖고 전도를 했던 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까지 하나같이 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성령님께서는 저희들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린이예요"

이은아(유치부교사)

"선생님, 한 밤만 자면 또 교회 와요?" 첫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유치부 친구 하나가 다시 나에게 뛰어오면서 물었다. "그럼" "와~ 신난다. 내일 또 교회 온다!" 내일 다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즐거운지 유치부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 아래 23, 24일 양일간 유치부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이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목표였다. 이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임, 물놀이처럼 즐거운 하나님 나라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졌다.

아무리 많은 물풍선을 던져도, 아무리 힘껏 물풍선을 던져도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이 모두 소리 모아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외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렸다.

또한 마귀가 주는 '미움', '다툼', '싸움', '거짓말', '욕심'등과 같은 나쁜 마음들이 씌어있는 패트병 들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를 외치며 성령의 공으로 넘어뜨렸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찬양과 율동도 하고, 9층에 설치한 간이 수영장에서 물놀이처럼 즐거운 하나님 나라도 경험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곳인지를,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느꼈다.

유치원 보다 교회가 더 좋다는 친구, 콘도보다 교회가 더 재밌다는 친구, 매일 교회 오고 싶다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지 기대가 되었다.

유치부 친구들은 부모님의 믿음으로가 아닌 스스로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다. 신앙이 뿌리 내려져야 할 유치부 시기에 그 시기에 적절한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평생의 신앙의 모습에도 관계된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들은 점점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

주안에서 모두 하나

안양욱(모악제일교회 담임교역자)

본 교회의 선교구역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이며, 인구는 200세대 500여명 정도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최저생활 유지, 자녀 교육, 문화생활 등을 모두 감당하기가 벅찬 형편입니다. 또한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현상과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해 가족구성의 양극화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역의 종교적 토양이 매우 난감한 상황을 연출하는데, 바로 이 곳이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마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주민의 75% 정도가 직간접적인 불교인입니다.

1996년 4월 7일 60여평의 조립식 건물에 모악제일교회라는 현판과 십자가를 세우고 첫 예배를 드렸다. 본인을 비롯해서 농촌선교에 뜻을 가진 12명의 장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2001년 현재, 아이들을 포함해서 70여명의 성도들이 교회의 주춧돌로 단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있으며, 기독교 문화의 불모지인 이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본 교회의 비전은 교육, 전도, 복지(섬김)에 있습니다. 즉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교회"를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청사진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교육이 노인들에게 맡겨져있는 지역적 특질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아이들은 도심문화와 교육을 맹목적으로 뒤따르고 있으며, 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문화를 심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란트입니다. 또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교회의 섬김 또한 중요합니다. 이들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안을 때 진정으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펴주시는 주님과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도시와 농촌이지만 교회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봅시다.

농촌봉사대 참가 준비를 하며

김명숙 권사(1교구)

할렐루야!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농어촌 전도대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농어촌 전도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북에 계시는 나의 어머님 때문이지요. 지금은 아마도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내 나이가 74세니까요.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출산하신 달이 8월 무더운 복날이었답니다. 저를 출산하신 후 어머님께서 너무도 더워 땀띠와 답답증이 치밀어 정신없이 몸에 물을 끼얹어 산후바람이 중하게 와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셨고, 이로 인해 여름 내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할머니와 친척들에게 듣게 되어서 어려서도 생일이 되면 어머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시댁을 따라 피난 온 지 54년이 된 지금 내가 딸을 낳고 할머니가 되고 보니 어머님 생각이 해가 갈수록 너무도 간절해져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찾다가 농어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해마다 가는 곳이 다르지만 가는 곳마다 나 자신이 은혜를 곱으로 받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지만 농어촌 전도를 가면 그런 고생보다는 기쁘고 감사하여 모두들 싱글벙글 합니다.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고생스러웠던 곳은 전라도 영안이라는 곳으로 바다를 개간하여 수많은 웅덩이가 모기의 소굴이었는데 밤낮없이 얼마나 물렸는지 성한 데가 없었고 긁은 데가 곪아서 여름 내내 고생하였다. 이런 고생스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듬해가 되면 농어촌전도를 가는 것은 지금까지 젊은이들과 같이 봉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농어촌 전도를 못 가셨던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전도는 그 현장에만 가도 은혜를 한없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대원들을 보아도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에도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심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농촌전도봉사단 명단

이규정 이영희 왕경례 최종식 하영수 윤찬오 최학인 김규태
서춘식 오광환 최소희 우상태 김순자 최봉애 주의현 황정욱
이기관 김명숙 전용순 이자혁 김종윤 신용식 김양언 김혜린
권윤경 오순배 정정숙 강희자 김정희 박미혜 김은숙 김옥순
홍재식 장양일 이양칠 심상필 김용호 곽정임 노선균 성기언
이준영 최유현 황주원 강민정 국산옥 김진숙 곽 숙

단기 선교팀- 치앙마이는 부른다.

팀장 박철훈 장로(11 교구)

뜨거운 폭염의 계절 8월에 단기선교팀으로 구성된 27명의 단원들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수개월 전부터 훈련에 돌입하여 태국 치앙마이로 떠날 채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선교에 참가한 대원 중에는 중 고등학생, 대학생과 청년들로 주축이 되어 있기에 더욱 생동감이 넘치고 기대되는 바가 크다.

특히 훈련과정으로 현지적응 훈련, 산악훈련, 기도회 및 선교이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지에 투입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현지사정을 잘 알 수 없는 터에 이양돈 선교사가 귀국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있어서 계획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고 준비하는 일에 차질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언어의 장벽을 염려했는데 카렌족 언어를 기본이나마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심정으로 선교할 작정이다.

특히나 우리가 택한 곳이 화전민이 사는 깊은 산 속이기에 그곳까지 가는 고생도 참아야 할 여정이고 산 속에서 우리를 맞이할 각종 들짐승의 습격도 견뎌야 할 훈련이다.

더욱 고민되는 것은 태국은 불교 권의 나라이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보통 믿음으로는 꿈찍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원들 모두가 고된 훈련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았고 어려움이 생길 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큰 믿음으로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여 주어서 큰 힘이 되었고 그곳에서 필요한 교회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고 기동력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우리를 태국에 보내면서 서울교회 성도들은 더욱 뜨거운 기도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선교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국 시까지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동정

- 이종윤 목사는 8월7일(화)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관규집사 이순영집사 하일동 (10교구)로 이사 (442-5473)
- 임희춘 집사 (1교구)람으로 이민-8월 6일 월요일
- 김선일집사(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테너 김선일 성가곡집' CD 제1집을 출반했다.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박성환 성도 강민희집사 가정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농촌전도대와 단기 선교팀의 영력을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동북아로 파송되는 홍의만 윤혜경선교사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